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 밀착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다!

▶ 기업 친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 現 정부 출범 후 '23년 上까지 32건, 약 6조6000억원 투자유치 성과

* 개청 후 9년간 실적(33건, 1조4740억)의 4배를 초과

< 관계기관 협업 기업 밀착지원 주요내용 >

- ① 전력공급여건 개선,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산업부, 한전, 농공, 청)
- ② 기업 맞춤형 개발 및 실시계획 개선, 투자유치 장애요인 제거(농공, 청)
- ③ 행정절차 단축 및 조기매립을 통한 잔여 산업용지 적기확보(해수부, 농공, 청)
- ④ 잔여 산업용지 조기확보를 위한 착공시기 단축(국무조정실, 조달청, 농공, 청)

새만금 산단이 대규모 전력공급을 확보하기위해 새만금청과 농공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작년 하반기 국내 대표 이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성일하이텍이 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신청했으나 전력 공급량 부족으로 전력공급예정시점('24,下)이 공장 가동시점보다 6개월 지연될 우려가 발생되었다. 새만금청은 이차전지기업 전력수요와 한전 공급계획 상황을 파악, 산업부 및 한전본사를 수차례 협의하여 한전 전력공급계획을 앞당겼고 변전소 위치 및 면적변경 등 계획변경 사항에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이로 인한 성과로 성일하이텍의 매출손실 1,400억원을 막았고, 전력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했다.

새만금 산단 역대 최대 규모 투자인 한중합작기업(에코프로+SK온+中) GEM코리아(1조2,100억), LS그룹(1조 8,000억)의 경우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개선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결과물이다

2개 기업의 경우 단일 공장부지를 10만평씩 요구하였으나, 새만금 산단에 남은 부지는 4차선 도로(폭28m)로 인해 공장부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기업이 원하는 부지가 부족했고, 도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철거와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를 제공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는 타 지역 산단사례,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가동시기에 차질없도록 하는 기업 맞춤형 규제개선(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장애사항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부지 합병을 위한 도로 폐쇄 면적(약9천평)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유상 공급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기업은 합병예정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부지매입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폐도로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철거 부담을 완화하였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몰려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 하고자, 설계부터 인허가의 행정절차 전(全)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해역이용협의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사전협의, 이전사항 수시조율 등 적극행정으로 6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발주 전 사업내용, 입찰방법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 지연요인을 미리 제거해 금년 10월 착공이 가능해져 당초 ('25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졌다.

아울러 착공시기 단축에 따라 잔여 산업용지(3·7공구) 공급시기도 '26년에서 '24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매립사업 공정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리 기업수요를 예측하고,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우선 매립하기 위해 단계별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규모가 현 정부 출범 후 크게 늘어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말했었다.

새만금청은 직접적인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각국이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거점 역할을 할 곳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